

경제

광주 삼겹살·숙박료 전국서 가장 싸다

삼계탕·비빔밥 서울 다음으로 높아 전남 택시료 최고 감사·쇠고기 저렴

지난해 삼겹살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였던 광주가 올해는 가장 저렴한 도시로 꼽혔다. 23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16개 시·도의 서민 생활 관련 30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공개한 결과 광주지역의 돼지고기(삼겹살·500g) 가격은 881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지난해 8월 1만2680원으로 삼겹살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쌌던 것이 1년 사이 30.5%나 떨어지면서 전국 최저가를 기록한 것이다.

광주는 숙박료(여관)도 2만74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숙박료가 가장 비싼 지역인 대전(4만3000원)보다 1만5600원(36.3%)나 싸고

전국평균(3만5159원)을 크게 밑돌았다. 이용료(컷트)도 광주는 9400원으로 대구(9000원)와 함께 가장 저렴한 지역에 속했다. 닭고기(1kg·5213원)와 고춧가루(500g·3416원) 등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았다.

반면 삼계탕은 광주가 1만2800원, 전남(1만2444원)과 함께 서울(1만3136원) 뒤를 이었으며 비빔밥도 6400원으로 전북(7150원)·서울(7136원)과 함께 비싼 지역에 꼽혔다. 또 쓰레기봉투(20ℓ)도 740원으로 부산(811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비쌌다.

■ 광주·전남 주요 서민생활 관련 품목 평균가격 (단위: 원, 자료: 기획재정부)

	돼지고기(삼겹살500g)	닭고기(1kg)	삼계탕	짜장면	이용료	하수도료	숙박료	택시요금	쓰레기봉투
광주	8,813	5,213	12,800	4,100	9,400	4,200	27,400	2,200	740
전남	9,998	6,065	12,444	4,000	11,111	2,964	36,667	2,805	301
전국평균	9,776	5,756	11,500	4,098	10,568	3,975	35,159	2,382	426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1년간 물가 상승률이 광주는 0.9%에 오른 데 그쳤지만 전남은 3.8%나 오르면서 서울(4.9%)과 함께 물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전남의 경우 택시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전남의 택시요금은 2805원으로 서울(2400원)보다도 비쌌다. 또 이용료(컷트·1만1111원)는 전남(1만1200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비쌌고 미용료(컷트·1만2444원)도 서울(1만5727원)·부산(1만3286원)과 함께 비싼 지역으로 꼽혔다. 광주에서는 저렴한 고춧가루(500g·4557원)와 닭고기(1kg·6065

원)를 비롯해 달걀(특란·10개·2006원) 등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비쌌다. 하지만 콩(1kg)이 898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싼 감자(1kg·2149원), 쇠고기(등심·500g·2만9319원)는 다른 지역보다 저렴했다. 또 공공요금 중 하수도료(20㎡·2964원)와 쓰레기봉투(20ℓ·301원)는 다른 곳 보다 싼 편이었다. 한편 지방공공요금(7개), 농축수산물(10개), 개인서비스(13개) 등 총 30개 품목의 가격정보는 '지방물가정보 공개서비스(www.mulg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나눔의 날' 행사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김중웅)과 광주공장 26개 봉사동호회 연합체인 '나눔공동체'(회장 김창주)는 24일 장애인복지시설인 강진덕수학교 학생들과 광주지역 홀로노인 등 250여명을 초청해 광주1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과정을 견학하고 메가박스 클럽버스에서 영화관람을 하는 등 '나눔의 날' 행사를 열었다. 광주공장은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나눔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홍도항 방파제 전남도 직접 발주”

지역건설업계 건의...U대회 경기장 공사 60% 이상 지역 참여 요구

지역 건설업계가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경기장 공사에 이어 신안 홍도항 방파제 건설 공사도 조달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경기 침체와 수도권 대형건설업체의 수주 독식에 따른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면서 업체의 생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주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몸부림으로 풀이된다. 24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김영구)에 따르면 전남도는 조만간 950억원 규모의 신안 홍도항 방파제 건설공사를 타기(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의 참여 확대가 가능하도록 조달청이 아닌 전남도가 직접 발주해야 한다”며 지난 20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서 건설협회 전남도회는 “건설경기 침체와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의 지역 건설물량 잠식, 타기·최저가 공사 증가 등으로 지역 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홍도항 방파제 건설공사를 조달청에 위임 발주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우대조항이 배제돼 수도권 대형건설업체의 독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회는 최근 자체 발주를 결정한 광주시의 광주야구경기장 건설공사와 U대회 경기장 건설공사 사례를 제시하며, 홍도항 방파제 건설공사의 전남도 직접 발주를 건의했다. /연필뉴스

한편, 광주시는 지역 건설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21일 1500억원 규모의 U대회 경기장 건설공사의 자체 발주를 결정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장호직)는 24일 “지역 건설업계의 수주 기회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광주시의 직접 발주 결정으로 지역의 일반 건설업체가 49% 이상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약 7500억 원의 수주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촉진 조례의 권장사항에 따라 전문업체가 하도급 공사에 60% 이상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제조업 생산·출하·수출 줄고 재고 쌓이고

광주·전남 경기침체 악화

생산과 출하·수출은 줄고, 재고는 쌓이는 등 지역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4일 금융기관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생산 및 출하는 고무·플라스틱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자동차·트레일러 등의 재고는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수출도 영향을 받아 자동차·화학공업제품·선박 등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을 분석한 결과, 7월 중 광주지역의 제조업 생산과 출하는 각각 -2.2%, -6.4%로 지난해 같은 달(-0.6%, -2.8%)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전남지역의 제조업 생산(7.2%→3.8%)과 출하(5.7%→2.5%)는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 폭이 다소 둔화했다. 건축착공면적은 광주가 -23.3%로 지난해 같은 달의 +24.0%에서 감소폭이 축소(-41.4%→-7.5%)됐다. 전남의 건축착공면적(-18.5%→+16.3%)과 건축허가면적(-25.9%→+8.7%)은 전년 같은 달보다 모두 증가로 전환했다.

또 7월 중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광주가 감소(-1.3%→-1.1%)를 유지한 가운데 전남은 증가세가 둔화(+0.7%→+0.0%)였다. 8월 중 수출은 광주지역에서 자동차의 수출 물량이 줄면서 감소로 전환(+0.6%→-3.5%)하고, 전남지역은 화학공업제품과 선박 수출 감소로 감소폭이 확대(-2.0%→-19.1%)됐다. 지역 제조업체들은 4분기에 경기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10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 4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 기준치=100)가 ‘83’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분기 114, 3분기 92에 이어 2개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기준치인 100을 크게 낮아 향후 경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는 생산량(107→95), 가동률(107→94), 매출액(102→89), 판매가격(92→85), 영업이익(93→75)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순천만정원박람회 입장권 광주銀 30억 원어치 판매

순천시와 약정식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과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24일 오전 순천시청에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식 후원은행으로서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입장권 30만매 판매

를 달성해 입장권 판매 불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송기진 은행장은 “광주은행은 지역민의 사랑과 관심을 제고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지역민과 호흡하고 지역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광주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내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순천만 일대에서 펼쳐진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세무조사 면제 기업 26만개→41만개로 확대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기준을 연 수입 1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주류 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한 전통주 판매도 허용한다. 기업의 자금여건 개선을 위해 추석 전에 한시적으로 하던 ‘관세환급 선(先)지급 후(後)심사제’를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연필뉴스

정부는 24일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출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번 조치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26만개로 41만개로 늘어난다. 지방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비율도 축소한다. /연필뉴스

코스피지수	2,003.44 (+1.07)
코스닥지수	532.28 (+0.79)
금리 (국고채 3년)	2.81% (-0.03)
원·달러 환율	1,120.50원 (+1.5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9월 22일 토요일 **OPEN**
충장로 1가 입구 안산빌딩 8F

웨버하우스 하우스

barbecue restaurant

즉석바베큐 & 다양한샐러드바

환영합니다
웨버하우스는 즉석 바베큐와 다양한 샐러드바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 친구와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 평일점심 ₩14,900
- 평일 저녁, 주말, 공휴일 ₩18,900
- 미취학아동 ₩6,000
- 초등학생 ₩9,900
- 영업시간 : AM 11시~PM 11시

예약문의 226-0003

주최인사 : ●송용치 이용시-건물 지하차량 이용(안산 1주차장)
●송합차 이용시-안산 2주차장 이용(안산1주차장에서 30m에 떨어져 있음)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0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매가 벗겨진 묘, 동침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